

길림 집안(집안)의 2기 고구려고분 (吉林 集安(輯安)의 2基 高句麗古墳)

崔茂藏 譯

(建國大 史學科教授)

1. 萬寶汀(만보정) 78(號) 古墳(고분)

1972年 가을 집안효구공사통구대대(集安效區公社通溝大隊)가 전신주를 세울 때 78호(號) 고분(古墳) 동남각(東南角)의 적석하(積石下)에서 많은 도금기물(鍍金器物)이 발견되어 현문물보관소(縣文物保管所)에서 직시 국부(局部) 정리를 하였다. 그후 1974년 가을에 길림성(吉林省) 박물관(博物館)이 이 고분(古墳)의 전면 정리와 실측(實測)을 하였다.

만보정(萬寶汀)은 현성북산각중(縣城北山各中)의 일편(一片) 남북협장(南北狹長)의 충적대지(沖積台地)이다. 이곳에는 많은고구려고분(高句麗古墳)이 분포(分布)되어 있고 또한 동구(洞溝)(통구(通溝))묘군(墓群)중(中) 고분(古墳)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장소의 하나이다. 고분(古墳)의 평면(平面)윤곽은 모두 정방형(正方形)이고 방위(方位)가 일치(一致)하다. 즉 모두 서북동남(西北東南)의 방향(方向)으로 배열(排列)되었다. 789호(號)고분(號古墳)은 이 평지(平地)중(中) 서편(西便)의 산근(山根)하(下)에 위치하는데 동(東)쪽으로 약(約) 100m지점에 通溝河(통구하)가 있다. 그 서북편(西北便) 아주 가까운 곳에 방향(方向), 규모(規模), 외형(外形)이 거의 그것과 같은 방단(方壇) 적석묘(積石墓)가 하나가 있고, 동남편(東南便)으로 약(約) 10m의 거리에 1기(基)의 봉토분(封土墳)이 또 있어 3기(基)의 고분(古墳)이 마치 일렬(一列)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고분(古墳)에서 동북(東北)으로 약(約) 6m 거리에 그것과 일렬(一列)로 평행(平行)한 방단(方壇)의 적석고분(積石古墳)이 있으며, 서남(西南)으로 약(約) 6m(米)의 거리에 그것과 일렬(一列)로 평행(平行)한 봉토분(封土墳)(이 고분(古墳)은 이미 발굴되었음)이 있다. 고분(古墳)의 질서 정연한 포열(布列)은 고구려(高句麗)의 족장제도(族葬制度)와 관계가 있다.

78호(號) 고분(古墳)은 1기(基) 평면(平面) 방형(方形)의 적석묘(積石墓)(그림 1)이다. 해변(海邊)길이 17m, 방향(方向) 22. 이다. 고분(古墳)주위에 다듬은 거대(巨大)한 괴석(塊石)으로 방단(方壇)을 축성(築成)하고, 서각(四角)에도 높이가 1.8m되는 거석(巨石)을 사용하였다. 현재(現在) 보존(保存)상태가 良好(양호)한 동(東), 남(南)의 양변(兩邊)에서 보면 원래 기단사변(基壇四邊)의 고도(高度)가 사각(四角)보다 낮지 않았던 것 같다. 기단외측(基壇外側)에 대석괴(大石塊)를 기대 놓았다. 상부(上部)가 무너져서 원래(原來)부터 계단(階壇)이 없었는지의 여부(與否)는 알 수가 없다. 기단(基壇)범위 내(內)에는 대괴력석(大塊礫石)이 퇴적(堆積)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직경(直徑)이 30~40cm로서 약(約) 3m의 분묘(墳墓)를 형성시켰다. 고분상부(古墳上部)가 약간 편편하다. 중앙(中央)에는 구경(口徑) 7, 깊이 0.7m의 과거(鍋底)형 요갱(凹坑)이 있는데 일찍이 도굴당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

발굴후(發掘後) 분묘중부(墳墓中部)에 간단한 묘광(墓壙)이 남아있었고 남각(南角)에 묘도(墓道)(선도(羨道))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굴에 의한 교란 때문에 묘광(墓壙)의 형제(形制)는 확실하지 않다. 광저(壙底)는 지표(地表)에서 약(約) 1.6m로서 기단(基壇)의 높이와 거의 같으며, 대괴(大塊)력

석(礫石)의 기초상(基礎上)에서 경(徑)이 약 4~5cm 정도의 쇠력석(碎礫石)을 일층(一層) 쌓았다. 현재(現在) 면적(面積)이 36㎡ 남았으나 불규칙형(不規則形)이다. 묘광(墓壙)

이 報告書는 考古呱呱. 1977.2號 pp.123~131에 실린 글이다.

우리의 歷史考古學과 高句麗史研究에 귀중한 資料가 될 것 같아 번역소개를 시도하여 보았다.

지금은 中共의 地域으로 변한 우리 故土, 吉林集安(輯安)의 2基 古墳이 中國學者들에 의해서 발굴, 보고되었다.

상당수의 用語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것과 다른데도 그 用語 자체의 뜻이 이해될 것 같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분야를 研究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希求한다.

길림집안(吉林集安(집안(輯安)))의 2기(基) 고구려고분(高句麗古墳)

1972年에서 1974年 사이에 길림성박물관(吉林省博物館)과 집안현물보관소(集安縣文物保管所)에서 집안만보정(集安萬寶汀)과 유사하(禹山下)에 있었던 2기(基) 고구려고분(高句麗古墳)을 발굴(發掘)하였다. 그 약고서(略報告)는 다음과 같다.

측면(側面)에 묘상(墓上)의 력석(礫石)과 같은 대괴(大塊) 력석(礫石)을 쌓았는데 마치 분묘(墳墓)를 쌓아올라가는 과정 중, 다만 일광혈(一墳穴)을 남길 욕심으로 거칠게 쌓은 것 같다. 현잔존(現殘存) 서변(西邊)의 일단(一段)은 높이 0.4, 길이 3.6m이며 방향(方向)은 묘(墓)의 기단(基壇)과 같다. 분묘(墳墓) 동남부(東南部)의 묘도(墓道)(선도(羨道))는 정남(正南)을 향(向)하고 있는데 나머지 길이(잔장(殘長)) 약 2m, 기서측상부(基西側上部)에 거대석괴(巨大石塊)가 쌓여있고 동측(東側)에는 묘상(墓上)의 력석(礫石)보다 조금 커다란 력석(礫石)을 쌓았으며 간관(間寬) 1.4, 잔고(殘高) 0.5m이다. 묘도(墓道)(선도(羨道)) 저부(底部)와 광저(壙底)는 수평이며 또한 소력석(小礫石)을 간 흔적이 있다. 묘도전단(墓道前端)은 현문물보관소(縣文物保管所)에서 정리한 부분(部分)으로, 여기에서 금동마안금구(金銅馬鞍金具), 등(鎧), 마함(馬銜)등(等)의 동기(銅器)가 출토(出土)되었다. 정리할 때 묘광(墓壙)과 묘도(墓道)에 대괴력석(大塊礫石)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정상(頂上)에는 개석(蓋石)을 설치한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묘내(墓內)에는 인골(人骨)이 없었고 다만 광저부(壙底部)에 많은 황유토기편(黃粘土器片)이 산포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질(泥質)의 홍색(紅色) 태토(胎土)로 형성(形成)되었고 황유(黃釉)는 깊게 스며들지 않았다. 기형(器形)에는 시루, 직벽착연분(直壁窄沿盆), 직령□(直領□), 창구전연호동이(敞口展沿壺等) 있었다. 호(壺)를 마□구일호고분(麻□溝一號古墳)과 장천이호고분(長川二號古墳)에서 출토(出土)된 것과 비교하면 구연서전(口沿舒展)의 정도(程度)가 비교적 작다. 또한 직령□견복부(直領□肩腹部)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하나의 토기편(土器片)에 약 3cm의 교상소횡계(橋狀小橫系)의 문양(文樣)이 그려져 있다.

묘도(墓道)(선도(羨道))전단(前端)에서 출토(出土)된 상당량의 금동기물(金銅器物)은 대부분 마구(馬具)인데, 그것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금동마안금구(金銅馬鞍金具) 4점(點), 계량부(系兩付), 일부(一付)는 루공(鏤空)의 권운화문(卷雲花紋), 화문(花紋) 가장자리에 밀집된 소점(小點)을 놓았고 권운도안(卷雲圖案)은 연속적인 것도 대칭적(對稱的)인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정교하고 금동마안금구내연(金銅馬鞍金具內沿)에는 못 구멍이 있고 외연(外沿) 즉 양이(鑲裏)에는 포변(包邊)의 금동편(金銅片)이 있다. 후마안금구(後馬鞍金具)의 하부(下部)는 관대(寬大)한 공형(拱形)이다(그림1.). 전마안금구(前馬鞍金具)의 동질(銅質)은 상당히 두텁고 가운데에는 일대(一帶)의 가고(加固)한 동편(銅片)이 있으며 상면(上面)에는 금못(류정(鉤釘))이 박혀 있다. 그외 일부(一付)는 소면(素面)인데 하부양익(下部兩翼)이 경사(傾斜)하고 중앙(中央)에는 요결(凹缺)이 있으며 외연(外沿)주위에는 일대동편(一帶銅片)을 달았고, 상부(上部)에 금못을 박고 내연(內沿)주위에는 돌기(突起)한 원릉(圓陵)을 가지고 있다.

마등(馬鎧) 4점(點), 계량부(系兩付), 목등(木鎧)으로 중심(中心)을 만들고 외이(外裏)에 금동편(金銅片)을 부착시켰다. 포이(包裹)의 방법(方法)은 먼저 목등(木鎧)의 내외측면(內外側面)에 좁은 금동편(金銅片)을 붙이고 가늘고 긴 청동못으로 고정시켰으며 발을 때는 부분에는 내(內)에서 외(外)로 5개

의 금송못을 박았다. 그런 다음 양면(兩面)에 등형(鏡形)의 금동편(金銅片)을 끼우고 내연(內沿)과 외연(外沿)으로 나누어 청동못으로 고정시켰는데 그 변연(邊沿)이 조금 측면(側面)으로 향(向)하였고 내(內)에는 측면(側面)의 좁은 (작조(窄條)) 동편(銅片)이 있다. 등(鏡)의 상부(上部)에는 일횡형(一橫形)의 구멍이 있어 매어달 수 있게 되었다. 통고(通高) 24, 넓이 18cm(그림 2),

마함(馬銜) 2건(件). 모두 잔편(殘片), 철질단간(鐵質短杆)으로 함련(銜鏈)을 만들고 좌석(左右)에 각각(各各) 1개 타원형의 금동(金銅) “협식(頰飾)”을 뚫었다. “협식(頰飾)”의 작용(作用)은 마□(馬□)과 같다. “협식(頰飾)” 횡(橫)타원형은 중간에 함련(銜鏈)의 원공(圓孔)을 뚫었는데 양편(兩片)의 동편(銅片)을 금동못으로 연합시켰으며 하편소면(下片素面)과 상편(上片)에 누화(鏤花)가 있으며 1점의 누(鏤)에는 십자형(十字形)문양(文樣)이 있다(그림 3, 8); 그외 1점(點)은 변연(邊沿)에 추자소점(椎刺小點)의 권운형문양(卷雲形文樣)을 놓았고 상측(上側)에는 장방형(長方形)의 구멍이 있다.

도형편(桃形片) 8점(點), 형식(形式)이 마함상(馬銜上)의 “협식(頰飾)”과 같다. 그러나 가운데에 구멍이 없고 상부(上部)에 횡장방형(橫長方形) 구멍이 있어 이면(裏面)에 끼워있는 혁대(革帶)의 금동편(金銅片)과 연결시켰고 위에는 금동못이 박혀 있다. 역시(亦時) 2개의 동편(銅片)을 금동못으로 고정시켰고 하편(下片)은 소면(素面)이고 상편(上片)은 투화(鏤花)(투창(透窓))가 있으며 또 십자(十字)무늬와 변연(邊沿) 추자소점(椎刺小點)의 권운(卷雲)문양 2층(種)이 있어 동양(同樣)문양처리의 마함(馬銜)과 같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9, 10).

대잡(帶卡)(혁대(革帶)고리, 자물단추) 15점(點)을 4식(式)으로 나눌 수 있다: I 식(式) 2점(點), 비교적 작으며, 후단(後端)이 이면(裏面)에 끼여진 혁대(革帶)의 금동편(金銅片)으로 상부(上部)에는 금동못(그림 3, 1)이 박혀 있다: II 식(式) 5점(點), 그중 일점(一點)이 제법 크고 잠권후단계대(卡圈後端系帶)의 부위(部位)는 평직(平直)하다(그림 3, 2); III 식(式) 4점(點), 잠권후단계대(卡圈後端系帶)의 부위(部位)는 고도(孤圖)(그림 3, 3)하다; IV 식(式) 4점(點), 후단(後端)이 원형고기(圓形鼓起)의 당두(擋頭(격쇠))에 연결되어 있다(그림 4).

□관엽(□管葉)의 포식(包飾) 34점(點), 대부분 부식 되었으나 삼식(三式)으로 나눌 수 있다. I 식(式) 22점(點), 선체동사(扇體銅絲)를 굽혀서 쌍단□(雙□)을 만든 후 일원관(一圓管)과 일반구상포(一半球狀泡)를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상단(上端) 굽은 곳의 원공(圓孔)에 일란형소엽(一卵形小葉)을 끼우고 동사말단(銅絲末端)에서 전각(轉脚)을 만들어 고정시켰다(그림 3, 5); II 식(式) 11점(點), 일단봉폐(一端封閉)된 세관(細管)의 중단이하(中段以下)를 삼□(三□)으로 나누어 다시 그 각□(□)을 구부러서 능(稜)을 만든 후 굽혀서 연합시켜서 일환관(一圓管)과 일반구상포(一半球狀泡)를 구성한 후 말단(末端)에서 전각(轉脚)을 만들어 고정시켰다. 3개(個) 절릉처(折稜處)에 각각 구멍이 나게 하여 그곳에 일란형소엽(一卵形小葉)(그림 3, 6)을 끼웠다: III 식(式) 1점(點), II 식(式)과 기본적인(基本的)으로 같은데 다만 형체(形體)가 다소 크며, 향방측(向旁側)을 구부러 4개(個)의 소릉(小稜)을 만들었다(그림 3, 7).

이와 함께 약간의 작은 금동편(金銅片)이 출토(出土)되었지만 분별(分別)이 어려웠다. 그 중 1점(點) 중앙에 권운식(卷雲式)을 만들고 그 중간에 사향(斜向)의 장방형공(長方形)이 있으며, 구멍주위 및 권운형(卷雲形)의 변연(邊沿) 모두 배면(背面)으로부터 전면(前面)으로 철기(凸起)의 소점(小點)을 추자(椎刺)하였다.

상술(上述)한 금동기(金銅器)가 모두 마구(馬具)라는 것은 이미 말하였으며 비록 상당히 부식되었으나 원형(原形)을 거의 알 수 있다.

2 .우산하(禹山下) 41호(號) 고분(古墳)

태왕공사사원(太王公社社員)이 작업(作業)도중 무너진 일기(一基)의 고구려(高句麗) 벽화 고분(古

墳)을 발견 하였다. 길림성박물관(吉林省博物館)과 집안현문물보관소(集安縣文物保管所)에서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무너진 동구봉로(洞口封壙)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 1479년 9월에 이 고분(古墳)을 정리하였다.

41호(號) 고분(古墳)은 동구(洞溝(동구(通溝))분지중부(盆地中部) 태왕공사우산대대제일생산대(太王公社禹山大隊第一生產隊)의 촌락중(村落中)에 위치(位置)하고 있는데 바로 우산남□전방(禹山南□前方) 수파변록(□坡邊線)로서 파면(坡面) 경사도 약(約) 6. 이다. 남쪽이 대도(大道)에 임하고, 길을 건너면 평탄한 농전(農田)이다. 동편(東便) 고분(古墳)의 기단(基壇) 가까이에 일조소계(一條小溪)가 흐르고 있다. 고분(古墳)으로부터 동(東)쪽으로 1리(里)의 거리에 유명한 태왕릉(太王陵)이 있다 : 부근을 살펴보면 북상파(北上坡)에 일찍이 파괴된 3,4기(基)의 적석묘(積石墓)와 봉토묘외(封土墓外)에 기타(其他) 고분(古墳)의 흔적은 없다. 오래동안 심하게 파괴된 41호(號) 고분(古墳)은 그 원상(原狀)을 판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고분기저부분(古墳基底部分)의 서변(西邊)과 남변(南邊)들이 □서단(□西段) 쪽으로 축조(築造)된 일층(一層) 기단(基壇)의 석조(石條)가 남아 있다. 그외 동변(東邊)이 편북(偏北) 쪽으로 일괴축조기단(一塊築造基壇)의 석재(石材)가 남아있다. 잔존(殘存)한 고분(古墳)의 기저(基底)와 봉분(封墳)(묘상(墓上))□석(□石)이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아 원래(原來) 방형기단(方形基壇)인 것 같고 그 변장(邊長)이 20m정도 될 것 같다. 수조기단(修造基壇)의 석조(錫條)는 상당히 정교하게 가공(加工)되었다 : 형상(形狀)이 규정(規整)하며 외측(外側)에 수직(垂直)으로 강하게 석조(石槽) 하나를 뚫은 흔적이 있으며 상면(上面)이 외연(外沿)에 일조(一條)의 철릉(凸陵)이 있다. 기단중간(基壇中間)에 □석(□石)이 □적(□積)되었고 분묘상부(墳墓上部)의 석□(□石)은 상당히 커서 체적(體積)이 대부분 50×50×304m³ 이상(以上)이다. 바로 중앙부분(中央部分)에 묘실(墓室)의 정개석(頂蓋石)이 노출(露出)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위에 □적(□積)된 □석(□石)의 높이를 근거로 하여 보면 묘상(墓上)(봉토상(封土上))의 □석(□石)은 원래(原來) 묘실(墓室) 정부(頂部)에 덮여져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발굴 당시의 묘상(墓上)(봉토상(封土上))의 높이는 2.15m이다. 전체적인 현상을 관찰하여 보면, 이 고분(古墳) 사주기단상(四周基壇上)에 원래부터 쌓았던 계단(階壇)이 있었던 것 같다. 묘실(墓室)은 거대(巨大)한 판석(板石)을 이용하여 구축(構築)하였는데 그것은 기단중앙(基壇中央)에 위치(位置)하고 있으며 평면(平面)은 장방형(長方形)이고 방향(方向)을 245.로서 기단(基壇)과 평행(平行)한데 동서(東西)길이 3.15, 남북(南北)너비 2, 높이 2.32m이다. (그림 4). 묘실(墓室)(현실(玄室), 주실(主室))저부(底部)는 지표(地表)보다 약간 낮고 기단(基壇)의 저부처(底部處)와 동일(同一)한 수준(水準)의 높이로 당초(當初) 묘실(墓室)의 저부(底部)를 지면(地面)과 같은 수준으로 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묘실(墓室)의 남(南), 북(北), 동삼벽하(東三壁下)에 각각 일단괴석조(一單塊石條)를 놓아 실저(室底)에서 20~25cm가 높아졌으며, 그 위에 석판(石板)을 세워 벽(壁)을 삼았다. 벽면(壁面)으로부터 회피(灰皮)박락(剝落)의 장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벽판표면(壁板表面)에는 가공(加工)한 □치(□齒)의 평행□척(平行□呎)이 있다. 묘실남벽(墓室南壁)은 수직(垂直)이며, 동(東), 북이벽(北二壁)은 약간 향내경(向內傾)하였다. : 동북각상(東北角上)은 석재(石材) 부족인 듯 석괴(石塊)로 채웠다. 각벽상방내측(各壁上方向內側)에 모두 출결구(出缺口)를 파고, 개정석판하면(蓋頂石板下面)의 철입부분(凸入部分)을 끼웠다. 개정석판면적(蓋頂石板面積) 약(約) 10m², 두께 50cm이다. 묘실(墓室)로부터 앙시(仰視)하여 보면 정석(頂石)의 사주변(四周邊)을 평정(平整)하게 쪼았으며, 중부(中部)가 조금 고곡(孤曲)으로 융기(隆起)되었다. 개정석전연(蓋頂石前沿(서변(西邊))상면(上面)에 간단한 파수(坡水)로 인하여 뚫어 졌으며 하면(下面)에는 켄구(開口)를 뚫어서 직각(直角)의 실□(室□)을 형성(形成)하고 외□하부남북양측(外□下部南北兩側)에도 횡렬(橫列)의 세조(細曹)를 만들었는데, 그 간격의 너비가 5cm 미만이다. 이러한 것은 정개석상(頂蓋石上)에 세조(細曹)를 각(刻)하는 작법(作法)으로 “장군총(將軍塚)” 좌후방(左後方)에 있는 고분들의 작법(作法)과 같은데, 이것은 아마 상면(上面) 적수(滴水)가 개석하□(蓋石下□)을 따라 실내(室內)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防止)한 것 같다.

묘실저부(墓室底部)에 삼괴횡향(三塊橫向)의 판석(板石)을 깔았는데 그 위에 장방형(長方形) 관상(棺床(대(臺)))을 놓았다. 관대(棺臺)는 정괴석판(整塊石板)을 쪼아서 만들어 표면(表面)의 평정(平整)

하고 하면(下面)은 거칠다. 그리고 그 하부(下部)에는 □석(□石)을 깔았다. 이 관대(棺臺)의 길이 2.8, 너비 1.24, 두께 0.1~0.18, 통고(通高) 0.2~0.3m이다. 묘실(墓室) 서방(西方)은 무벽(無壁)으로 실외(室外) 묘도(墓道)(선도(羨道))와 접(接)해져 있다. 묘도저부(墓道底部)가 실저(室底)보다 75cm 높는데 양괴석(兩塊石)으로 편편하게 한 후 방정(方整)한 대석재(大石材)를 깔아 놓아 묘실(墓室) 정도로 넓게 하였으며, 내단(內端)은 조금 묘실(墓室)에 진입(進入)되어 있다. 길이가 1.6m이다. 묘도(墓道)(선도(羨道))의 양벽(兩壁)은 모두 심하게 손상(損傷)되었는데 원래 조금 가공(加工)한 석재(石材)를 쌓았다. 두벽의 거리(즉 연도(묘도(墓道)) 너비)는 묘실(墓室)보다 약간 좁다. 선도저부(羨道底部)의 상면(上面)에 쌓은 석재(石材)가 묘실(墓室)의 내단변연상(內端邊沿上)에 진입(進入)되었는데, 그 위에 일도(一道) 요조(凹槽)가 각(刻)되었고 정석외□(頂石外□)의 세조상하(細槽上下)와 상대(相對)를 이루었으나 약간 편외(偏外)되었다. 그 용도는 불명(不明)한데 아마 묘도저부(墓道底部)에 적수(積水)된 물이 묘실(墓室)에 직접 침투되는 것을 방지(防止)한 시설인 것 같다.

묘(防止)에 쌓여진 쇄탄(碎炭)을 정리하였는데 그 두께가 약 60cm정도였다. 묘실서부(墓室西部) 근문구(近門口)에 상당히 거칠게 가공한 석료(石料)와 대량(大量)의 난석(卵石), 황사(黃沙) 및 석회(石灰)가 포함된 “삼합토(三合土)”가 퇴적(堆積)되어 있는데 당초에 석장(石牆)과 묘실(墓室)을 봉폐(封閉)하는데 사용되었던 것들 같다.

묘실(墓室)내(內)의 벽면(壁面), 정부(頂部), 관대(棺台)를 포함하여 묘도(墓道)(선도(羨道))저부(底部)의 대석재내측(大石材內側)까지 모두 두께 0.5cm정도의 백회(白灰)를 발랐는데, 지금은 대부분 떨어져 흔적만 남았고, 그 떨어진 흔적이 정부(頂部)가 가장 심하다. 벽면(壁面)에는 여전(如前)히 백회(白灰)의 표면(表面)처리가 남아 있으며 또한 떨어진 백회피상(白灰皮上)에 시채(施彩)한 벽화(壁畫)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다. 묘실(墓室)의 남(南)·북(北) 양벽상방(兩壁上方)에 각각 횡렬(橫列)한 일단의 소공(小孔)이 있는데 그 간격은 모두 35cm이다. 잔존(殘存)한 벽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소공(小孔)의 주위에 일엽연화도안(一葉蓮花圖案)이 중심(中心)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식(樣式)의 연화도안(蓮花圖案)은 북벽상(北壁上)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래(原來) 팔엽(八葉)의 연화(蓮花)라는 것을 판명할 수 있었고 소공(小孔)은 오히려 안쪽의 팔엽중(八葉中) 가까이 파져 있다: 남벽상방(南壁上方)의 백회(白灰)는 완전(完全)히 탈락(脫落)되었지만 북벽(北壁)과 마찬가지로 6개(個)의 소공(小孔)이 대선(對線)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동구제12호고분(洞溝第12號古墳)과 마□구일호고분묘실내(麻□溝一號古墳墓室內)에 대응부위(對應部位)의 유사한 처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소공(小孔)은 원래 고리(괘구(掛鉤))를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도 이러한 소공(小孔)중에 고리(鉤)를 끼우고 회니(灰泥)를 바른 흔적을 볼 수 있다. 같은 소공(小孔)이 정개석하면중(頂蓋石下面中)의 중앙좌우(中央左右)에 각각 하나씩 뚫여 있어 못이나 고리를 끼우는 장소로 보고 있다.

묘실내(墓室內)의 벽화는 이미 대부분 박락(剝落)되었는데 어느 것은 주□(朱□)를 칠한 모호한 흔적이 남아있어 잔존(殘存)한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 시켜 준다.

묘실사각영작(墓室四角影作)은 홍색(紅色)을 칠한 □주(□柱)이다. 동북각(東北角)에서 보면 주단(柱端)에는 노두(樞斗)가 있는 것 같고 위로 영작(影作)의 □홍색(□紅色) 양방(梁枋)이 이어졌다. 양방(梁枋)은 대단히 좁아 동(東)·남(南)·북3벽(北3壁)의 정단(頂端)에까지 관통되어 있다. 동벽(東壁)(□묘도(□墓道))을 향(向)한 정벽(正壁)에 있는 영작양방(影作梁枋)하에 청회색옥자(靑灰色屋宇)를 그렸고 우변(右邊)으로부터 아직 홍선구륵(紅線勾勒)(올가미)의 사□(斜□)가 존재(存在)하여 사파정(四坡頂)을 이루었다. 옥□하(屋□下)에는 노란 커튼이 걸려있다. 커튼 중부(中部)에서 남(南)쪽으로 한 남자가 있는데 황지홍점(黃地紅點)의 합임화외(合衿花衣)를 입었고, 얼굴을 약간 남쪽으로 돌렸다. 아직도 가늘고 긴 두 눈이 보이며 곧은 코 약간 벌린 듯한 붉은 입술을 가진 관후(寬厚)한 얼굴의 묘주인(墓主人) 모습이다(그림 5). 구륵(勾勒)(올가미)형상(形象)의 묵□면밀(墨□綿密)한 것을 단정히 입고 미목(眉目)부분의 눈썹이 가늘고 검은 것이 선명하고 얼굴이 붉은 빛을 띠고 있다. 동벽(東壁)전체가 묘주인(墓主人)이 집에 머물면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북벽(北壁)의 영작양방하(影作兩枋下)에 8

엽(葉)의 연화(蓮花)를 그렸는데 그 내부에서 외부(外部)로 일홍일록(一紅一綠)의 순서로 형성되는데 내부의 6엽중앙(葉中央)에 구멍을 뚫은 흔적이 있다. 기하(其下)는 중부(中部) 편리(偏里)에 있으며 □홍색(□紅色)의 사슴의 후반신(後半身)이 있어 수렵 도상(圖象)의 잔적이 보인다. 녹(鹿)의 후부편하방(後部偏下方)에 1인(人)이 내(內)를 향(向)하고 몸을 약간 앞으로 굽히고 있으며 “형여변(形如辯)”의 “절풍(折風)”을 머리에 쓰고 길황색(桔黃色)바지를 입고 홍장동화(□紅長筒靴)를 신었다. 조금 더 안쪽 □주(□柱) 가까이에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문의(問外)하고 방□(方□)을 머리에 쓰고 합임의(合衽衣)를 입고 허리띠를 매었다. 이외 북벽상(北壁上)에 약간 복잡하게 분포된 “신□포지(伸□布指)”의 나무가지가 있고 또한 피침형(披針形)의 영성록엽(零星綠葉)(그림 6)이 있다. 남벽(南壁)은 회피(灰皮)의 탈락(脫落)이 심한데도 중앙편외(中央偏外)의 하부(下部)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는 향외(向外)하고 황색합임의(黃色合衽衣)를 입었다. 이외, 벽면상방(壁面上方)과 북벽(北壁)에 정시연화상응(正視蓮花相應)의 부위(部位)가 있는데, 여기에도 6개소공(個小孔)이 있어 원래 연꽃을 그린 것 같다. 묘도(墓道)(선도(羨道))중에 깔아놓은 2괴석재(塊石材)가 묘실(墓室)의 측벽(側壁)을 향(向)하고 있는데 관대(棺台)와 더불어 모두 백회(白灰)가 칠해져 있고 □홍색(□紅色)의 반점이 조금 남아 있으나 그림 내용은 알 수 없다. 정석부분(頂石部分)은 회피(灰皮)가 모두 떨어져 표면(表面)에 벽화가 있었는지의 여부(與否)는 알 수가 없다.

이 고분(古墳)은 일찍이 도굴당하였다. 잔존(殘存)한 골□(骨格□)과 유물(遺物)은 대부분이 묘실전부(墓室前部)에 퇴적된 “삼합토(三合土)”에서 출토(出土)되었다. 묘도중(墓道中)과 묘실내(墓室內)에 적□(積□)된 상층중(上層中)에서 우연히 출토(出土)되었는데, 적□하부(積□下部)에서는 아무 것도 출토(出土)되지 않았다. 골□(骨□)중에 □골(□骨), 지골(指骨), 지골(肢骨)과 □골(□骨)의 잔편이 보였다.

출토유물(出土遺物)은 대부분 기구(器具)의 부속품인데, 대체적으로 개갑(鎧甲), 마구류(馬具類)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의 다량의 황채도편(黃菜陶片)과 관곽상(棺槨上)의 부속품이 있다. 이와 같은 유물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철제기물(鐵製器物)

마안(馬鞍) 1점(點), 부식이 심하여 부러지다. 박철편(薄鐵片)으로 만들어졌는데 외록(外緣)에는 또 다른 철편(鐵片)을 부착하고 내록(內緣)에 일단의 소공(小孔)을 뚫었다. 배면(背面)에 부식된 후목(朽木)이 있어 원래(原來)의 마안(馬鞍)이 목질(木質)임을 인지(認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마안내록(馬鞍內緣)을 목안상(木鞍上)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외록(外緣)은 목안(木鞍)의 변연(邊沿)과 함께 철편(鐵片)으로 감쌌다. 마안하부양단(馬鞍下部兩端)거리 52, 통고(通高) 약(約) 36cm로서 후마안(后馬鞍)같다. 또한 양단포변(兩端包邊)의 철판(鐵皮)이 있었는데 전마안(前馬鞍)에 부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등(馬鐙) 1점(點). 이미 상당히 부식되었다. 목질등□외이(木質鐙□外裏)에 철판(鐵片)이 있었던 것으로 1철판하측(鐵片下側)에 1철기(凸起)의 못 흔적이 있어 원래(原來) 목등(木鐙)과 철판(鐵皮)은 못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사이 내외(內外) 측면(側面)의 틈사이에는 좁고 긴 철판(鐵片)을 끼웠다. 마등상단(馬鐙上端)에는 횡장방(橫長方)의 구멍이 있어 매달게 되어 있다. 발을 놓는 장소에는 내측(內側)에 두터운 방모형(方帽形)의 못을 6개 박았다. 잔고(殘高) 27, 너비 20, 전체 두께 1.4cm이다.

마안판식편(馬鞍板飾片) 1점(點) 평면(平面)이 편형(扁形)이며 마안판두표면(馬鞍板頭表面)을 덮었는데, 그 중부(中部)에 일사향(一斜向)의 장방공(長方孔)이 있으며 안비(安鼻)를 이용하여 조대(□帶) 또는 수식(垂飾)을 매달았다(그림 6, 7). 그것은 과거의 마□(馬□)(그림 9, 1). 1점(點)은, 다만 대편(帶片)(그림 8, 2)만 가졌다.

갑편(甲片) 155점(點). 대부분 협장(狹長)한 설상(舌狀)이다. 녹연(綠沿)이 가볍게 향내경절(向內傾折)하고 상단(上端)이 말각(抹角)하며, 하단(下端)이 만도(漫圖)이고 그 몸체에 점철한 구멍이 있다(그림 9). 일부분(一部分) 갑편(甲片)은 상당히 짧다. 삼점(三點)의 갑편상단(甲片上端)이 삼각형(三角形)인데 관절부분(關節部分)으로 응용하였다 : 1점(點)의 갑편(甲片)이 대단히 긴데, 이것은 활동(活動)이

심하지 않은 구간(軀干) 또는 견박부위(肩膊部位)에 응용한 것 같다 : 몇편의 갑편(甲片)이 만곡(灣曲)되었는데, 사용장소(부위(部位))에 따라 만들어진 것 같다. 또한 몇편의 갑편(甲片)은 일단(一端)이 좁고, 일단(一端)이 넓은게 전체적으로 매우 작다. 이와 십일괴(十一塊)(조각)이 녹이 쓴 것들도 있는데 아마 원래(原來) □갑용(□甲用)으로 가는 실로서 연결시켜 고기비늘처럼 만들었다(그림 9, 9). 이것들을 연결시킬 때 어느 갑편(甲片)은 좌측(左側)으로부터 우측(右側)으로 연결시키고, 어느 것은 우측(右側)에서 좌측(左側)으로 연결시켜 이어 나갔다. 어느 갑편(甲片) 양면(兩面)에 아직도 실로 이은 흔적이 남아 있다. 고구려 벽화중 인마(人馬)는 모두 갑옷(□갑(□甲))을 입었는데, 이 고분(古墳)에서 출토(出土)된 갑옷편(갑편(甲片))은 인□(人□)(사람의 갑옷)인지 또는 마갑(馬甲)(말에 걸치는 갑옷)인지 알 수가 없다.

모(矛) 2점(點). 후부(後部)가 권간상□(卷筒狀□)으로 □단(□端)에 상대적(相對的) 구멍이 있고 단도(端刀)이 두텁고, 전부(前部)가 만절(灣折)한데 용도(用途)는 확실하지 않다(그림 7, 7).

족(鏃) 1점(點). 중축(中軸)으로부터 편평(扁平)한 삼익(三翼)이 분출(分出)되었는데, 일익전단(一翼前端)이 파손되었고, 족신(鏃身)과 연(鋌)(살촉 정)의 사이에 “격(格)”이 있는데, 잔장(殘長) 4.4cm(그림 8, 7)이다.

추(墜)(떨어질 추) 1점(點). 봉종형(棒鍾形)으로 후단(後端)을 가늘게 만들어 굽혀서 구멍을 만들었다. 고기잡이 낚시에 사용하는 추 같다. 통장(通長) 3.8cm, 무게 8g(그림 8, 11)이다.

국형반수(銅形扳手)(격쇠) 6점(點). 양단(兩端)의 못끝부분을 목질기물(木質器物)에 박는데, 철정(鐵釘)부분 전(前)을 격쇠 후단(後端) 또는 전각(轉脚)에 고정시키는 격쇠(그림 7, 7, 3)이다. 당두(擋頭)(격소)와 당두(擋頭)(또는 전각(轉脚) 사이)의 사이를 실측할 수 있었고, 삼점(三點)의 커다란 못의 두께는 6cm정도였다 : 삼점(三點) 작은 못의 두께는 6cm 정도로 관곽상(棺槨上)의 반수(扳手)(격쇠)일 가능성이 있다.

원편당두(圓片擋頭) 2점(點). 1점(點)은 크고, 1점(點)은 작다. 두터운 철판(鐵片)으로 만들었는데, 가운데에 둥근 구멍이 뚫여서 마치 포(鋪)(문고리 포)수의 점판(墊板)같다(그림 7, 4, 5).

원모단단(圓帽短短)(못정) 24점(點). 둥그란 모자형 머리를 가진 못으로 못다리(정각(釘脚))가 대단히 짧다. 길이 2.5cm정도(그림 8, 13).

후모방정(厚帽方釘) 6. 모두 파손되다. 못이 방주형(方柱形)으로 하부(下部)가 조금 가늘고, 상대(上帶)는 두터운 방모(方帽)형인데 최장(最長)의 잔장(殘長) 11cm(그림 8, 15)이다.

고리(괘구(掛鉤)) 2점(點). 둥근 철사를 구부려서 고리를 만들었는데, 후단(後端)을 마치로 방형(方形)을 이루게 한 원형당두(圓形擋頭)이다(그림 7, 2). 동구제12호고분(洞溝第12號古墳)의 최초(最初)의 사진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장면상부(牆面上部)의 연꽃중심에 박은 고리(掛鉤)이다.

2. 금동질류(金銅質類)

도금(鍍金)은 모든 기물(器物)의 외표일면(外表一面)에만 하였는데, 목적은 장식과 부식방지에 있다.

원포십자형대구(圓泡十字形帶具) 1점(點). 중간이 반구형원포(半球形圓泡)인데 상하좌우(上下左右)의 1방형박편(方形薄片)이 나와있으며, 박편상(薄片上)에는 4개의 류정(鉤釘)(금못)흔적이 있다. 류정(鉤釘)의 전각(轉角)에서 보면 못은 피대상(皮帶上)에 부착시킨 것 같다. : 그리고 방형박편이단(方形薄片裏端)에는 각각(各各) 고리(잡권(卡圈))가 있어 대(帶)에 끼울 수 있게 되었다(그림 8, 8).

□관엽(□管葉)의 무늬(화식(花飾)) 3점(點). 편체동사(扁體銅絲)로 굽혀서 관련(串聯)의 1개동형세관(個筒形細管)을 만들었는데 일매육변형(一枚六變形)무늬와 일편골제(一片骨制)의 원형박편(圓形薄片)으로 조성(組成)되었다. 동사하단(銅絲下端)에는 좌우(左右)로 향(向)한 전각(轉脚)을 다른 기구(器具)위에 고정(固定)시켰다 : 정단(頂端)의 굽은 곳은 원공(圓孔)으로 변성(變成)되고 가운데에 일매난형(一枚卵形)의 동엽(銅葉)(그림 8, 9)을 끼웠다. 똑같은 동엽(銅葉)이 또 8편(片) 출토(出土)되었는데 다만 형체(形體)가 조금 크다.

원모정(圓帽釘) 4점(點). 원형(圓形)으로 돌기(突起)된 정모상부(釘帽上部)에 도금(鍍金)시켰다. 2점(點)의 커다란 것으로 통장(通長) 4.5cm(그림 8, 12, 14)이다.

반원형식편(半圓形飾片) 2점(點). 1점(點) 너비 2.5, 1점(點) 너비는 2cm이다. 기상(其上)에 각각(各) 3매(枚)의 류정(鉤釘)을 박았는데, 류정전각(鉤釘轉脚)에서 보면 피정(被釘)의 가능(可能)이 약 0.3cm의 혁대(革帶)(그림 8,5)이다. 일식편배면(一飾片背面)에 아직도 마포(麻布)흔적이 있어, 당초에 못박을 때 붉은 색의 마포(麻布)를 감은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고 있다.

능형식편(菱形飾片) 1점(點). 이미 상당히 부식되었다. 중간(中間)에 투창(透窓)(루공(鏤空))의 권초화문(卷草花紋)(무늬)을 놓고, 그 변록(邊緣)에 권점(權點)을 자각(刺刻)하였다. 각상(角上)에는 소공(小孔)이 있다(그림 8, 10).

편면형식편(扁面形飾片) 1점(點). 불완정(不完整)한데 내측(內側)에 1개(個)의 대(大)1개(個)의 소(小)의 양공(兩孔)이 있다.

당두(擋頭)(꼭쇠) 1점. 주초기릉(周沼起稜)의 원형박편(圓形薄片)으로 가운데에 구멍이 있다.

3. 은질류(銀質類)

다만 1점(點). 팔릉주상단식(八稜柱狀端飾), 재(載)면(짜르면)을 편팔각형(扁八角形)으로 만들었는데, 정면(頂面)은 폭이 넓고 위로 도드라진 반면에 하부(下部)는 가볍게 좁혀졌다. 그리고 정면(頂面)과 측면(側面)의 사이의 능각(稜角)은 줄로 쓸어 편편하게 하였다. 저하(底下)에는 불규칙한 공동(孔洞)이 하나 있는데 깊이가 1.2cm로서 주정(柱頂)을 꽂을 수 있게 되었다. 통고(通高) 2.4, 너비 2.5cm, 무게 86g(그림 8, 6)이다.

이외에 1점(點)의 쇠못이 1점(點) 있는데, 중앙(中央)은 철질(鐵質)이고 양단정모(兩端頂帽(못머리))는 은(銀)으로 되어 있으며 들기(突起)된 현상은 반구상(半球狀)이다. 통장(通長) 7.4, 철정(鐵釘)(쇠못)부분 장(長) 6.4cm(그림 8, 4)이다.

4. 황유도기(黃釉陶器)

출토(出土)된 유토기편(釉土器片)은 수량이 상당히 많다. 태토(胎土)는 모두 이질천홍색(泥質淺紅色)으로 안과 밖을 황록색유(黃綠色釉)로 처리하여 대단히 맑다. 손잡이가 4개달린 호삼점(壺三點)과 소량의 시루편이 있다. 복원된 1점(點)의 호(壺)는 구연부가 해바라지고 배가 부르며 평저(平底)이고 복중(腹中)에 대칭(對稱)의 4개 교상횡이(橋狀橫耳)(손잡이)가 있고 어깨에 일대사방격(一帶斜方格)무늬가 있고 밑부분에는 수□(垂□)무늬가 시문(施文)되었다. 고(高) 40, 구경(口徑) 32, 저경(底徑) 17.5, 두께 0.9cm(그림 10)이다.

5. 직물(織物)

마포잔편(麻布殘片), 강홍색(絳紅色), 실의 굵기가 같다. 실이 매우 조밀하게 짜여졌으며 무늬는 직문(直紋)같고 그 조직(組織)이 매 평방센티미터에 약 19×11근(根)이다. 반원형(半圓形)의 문양이 배면(背面)에 있는 작은 표본외(標本外)에 상당히 커다란 천조각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3층(層)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면□(上面□)은 당두(擋頭)(꼭쇠)의 동제소권(銅製小圈)을 이용하여 만들어 졌으며, 또한 속옷도 만들은 것 같다. 이외, 어느 갑편상(甲片上)에 우세(紆細)의 평문직물(平紋織物)이 있는게 평균(平均) 매 평방 센티미터가 약 31×30근(根)으로 일종(一種)의 사직품(絲織品)일 가능성(可能性)이 크다.

6. 칠기편(漆器片)

대부분 주홍색(朱紅色)을 칠하였으며, 개별적(個別的)으로 진한 갈색(褐色)을 칠한 것도 있다. 다만 일소편상(一小片上)에 진한 갈색의 바탕위에 주홍색(朱紅色)을 하였는데 두 색깔의 교접처(交接處)는 평제(平齊)의 직선(直線)이다. 문양 또는 기타 채색은 없다. 이러한 칠기편은 관곽상(棺槨上)에서 떨어진 것 같다.

3. 몇가지 문제

만보정(萬寶亭) 78호(號) 고분(古墳)과 우산하(禹山下) 41호(號) 고분(古墳)의 고고학(考古學) 자료(資料)에 의하여 고구려 묘제(墓制)의 변천과정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알 수 있었다.

(1) 적석(積石)으로 봉분(封墳)(적석위봉(積石爲封))을 만든 고구려 전기(前期)에 유행(流行)한 묘제(墓制)이며 이러한 것들이 중국(中國) 동북(東北)의 고구려(高句麗) 고분(古墳)중 다수(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적석묘(積石墓)는 1949년 이후(以後)에 환인대고력묘자(桓人大高力墓子)에서 상당수를 발굴한 외(外)에 1964년에 길림성박물관(吉林省博物館)에서 집안양민(集安良民)에서 또한 상당(相當)수의 고분을 발굴하였다. 전술(前述)한 자료에서 발견된 바에 의하면 전기(前期)의 적석묘(積石墓)는 분묘(墳墓)중 거칠게 협소한 작은 묘광(墓曠)을 만들었고, 후기(後期)의 적석묘(積石墓)에는 묘도(墓道)(선도(羨道))와 정개석(頂蓋石)으로 구성(構成)한 (동실(洞室)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78호(號) 고분(古墳)에 동실(洞室)(玄室(현실))도 없고, 정개석(頂蓋石)도 없는데 반하여 간단한 묘도(墓道)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일종(一種)의 과도기적 현상 같다. 이것의 연대(年代)는 (동실(洞室)(玄室(현실))이 있는 석묘(石墓)보다는 늦은 것 같다. “절천정총(折天井塚)”과 소위(所謂) “사아총(四阿塚)” 등의 묘장(墓葬)은 대개 4, 5세기의 유적(遺蹟)이며, 환인등지(桓人等地)와 같은 간단한 묘(墓)의 석분(石墳)은 대개 동한말(東漢末)의 유적(遺蹟)이고, 38호(號) 고분(古墳)은 대개 4세기 전기(前期)에 속한다.

(2) 고구려(高句麗) 고분(古墳)을 분묘(墳墓)의 외관상(外觀上)으로 관찰하여 크게 양대류(兩大類)로 분류(分類)할 수 있다 : 1류(類)는 완전(完全)히 석괴(石塊)로 추적(推積)한 소위(所謂) “적석위봉(積石爲封)”으로 석분(石墳)이라 칭(稱)하고 : 다른 1류(類)는 전체를 황토(黃土)로 덮은 것으로 토분(土墳)이라 칭(稱)할 수 있다. 과거에 발견된 고구려 벽화고분은 전부 토분(土墳)에 속하고, 석분(石墳)중에서는 벽화를 발견한 일이 없다. 41호(號) 고분(古墳)은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唯一)한 벽화가 있는 고구려 석분(石墳)으로 깊이 연구(研究)할 가치가 있다.

41호(號) 고분묘실(古墳墓室)(현실(玄室), 주실(主室))의 평면결구(平面結構)와 장벽하(牆壁下)에 설치한 기석(基石)(초석(礎石))과 정석외□(頂石外□)에 세조(細槽)를 각(刻)하여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작법(作法)은 모두 “장군총(將軍塚)” 좌우방(左右方)의 다른 고분(古墳)들과 같다. 그러나 그 구조(構造)가 현저히 정교하고 묘실저부(墓室底部)가 지표(地表)에서 고출(高出)하지 않았다(고구려 중전기묘장(中前期墓葬)의 동실(洞室) 또는 묘광(墓曠)이 대부분 지표(地表)에서 고출(高出)되고 중기이후(中期以後) 동실(洞室)은 대부분 지표(地表)와 동일(同一)한 수준(水準)이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장군총(將軍塚)” 주위 고분(古墳)들의 축조연대를 장군총과 동시대(同時代) 또는 약간 늦은 오세기초(五世紀初)로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구형제방면(結構形制方面)에서 보면 41호(號) 고분(古墳) 축조(築造) 연대(年代)는 장군총(將軍塚)보다 이르지 않다. 다시 이 12기고분벽화(基古墳壁畫)의 배치(配置), 도상(圖象)과 풍격(風格)등 방면(方面)에서 고찰(考察)하여 보면 모두 동구제11호(洞溝第11號) 고분(古墳)과 마잔구일호고분(馬殘溝一號古墳)과 같다. 고분(古墳)에서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은 대부분 이 마잔구일호고분(馬殘溝一號古墳)의 것과 같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 고분(古墳)의 연대(年代)를 5세기(世紀) 중엽(中葉)으로 정(定)한다. 41호(號) 고분(古墳)은 5세기(世紀) 중엽(中葉)의 고구려고분(高句麗古墳)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전히 “적석위봉(積石爲封)”의 전통방법(傳統方法)(형제(形制))(내부구조(內部構造)는 이미 변화(變化)가 발생하였다)을 채택하여 상당(相當)히 농후한 보수성(保守性)을 반영하고 있는데 묘중벽화(墓中壁畫)는 오히려 □시(□時)(시속(時俗))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모순(矛盾)의 현상(現象) 같은데 실은 신구사물(新舊事物) 교체(交替)과정 중 필연적(必然的)인 산물(產物)이다. 역사상(歷史上) 사회경제기초(社會經濟基礎)의 개변(改變)을 따라서 탄생된 새로운 의식형태(意識形態)는 결국에 상당히 오래된 의식형식을 변형 시킨다 : 새로운 매장습관(埋葬習慣)이 탄생되어 날로 넓게 유행(流行)되기 시작하면 잔존(殘存)한 동(洞)의 장제(葬制)에게 커다란 충격을 가하여 결국은 변천시킴은 양변(量變)에서 질변(質變)의 근본개조(根本改造)에까지 이르게 된다. 41호(號)고분(古墳)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관적(主觀的)으로 인정하기를 동구(洞溝(通溝(통구)))지방(地方)의 고구려고분(高句麗古墳), “토(土)(벽화고분) 석도시(石導時)”, 그리고 고구려를, “석분시대화(石墳時代化)”와 “토분시대(土墳時代)”의 두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번에 41호(號) 고분(古墳)을 발굴(發掘)한 결과(結

果) 상면(上面)의 설법(說法)은 완전(完全)히 실제정황(實際情況)과 부합(符合)되지 못함을 확실히 설명하여 주고 있다.

(3) 집안(集安(集安(輯安)))지구(地區)는 산구(山區)에 속하여 경지면적(耕地面積)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사적(史籍)에 고구려에 관한 기록으로 “다대산심곡(多大山深谷), 무원택(無原澤)…무양전(無良田), 수력전작(雖力佃作)”, 그리고 당시의 생산조건하(生產條件下)에 “부족이실구복(不足以實口腹)” “잠농부족이자급(蠶農不足以自給)”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는 41호(號) 고분의 축조는 우수한 업적으로 볼 수 있다.

(4) 이 2기(基) 고분(古墳)이 비록 도굴을 당하였으나 출토(出土)된 유물은 고구려족(高句麗族)의 문화(文化)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78호(號)호고분출토(古墳出土)의 금동유물(金銅遺物) 공예(工藝)는 정교하고 기술(技術)은 완숙하여 다른 5세기 내지 6세기 고구려 고분 중에 출토된 금동기물(金銅器物)과 비교하면 거의 상하(上下)로 나누기가 어렵다. 도금기술(鍍金技術)이 고구려에서 일종(一種)의 습관된 전통공예가 되어 상당히 광활하고 멀리까지 유전(流傳)되어 있었다.

이 고분(古墳)에서 출토(出土)된 유물은 마구(馬具)가 상당히 많고 황유토기편(黃釉土器片)중에는 호(壺), 분(盆)과 시루등이 있었으며 그 문화상태가 마잔구일호고분(馬殘具一號古墳) 및 장천이호고분(長川二號古墳)과 아주 상이(相以)하다. 이러한 것으로 4, 5세기 고구려 고분(古墳)이 석분(石墳)으로부터 토분(土墳)으로 가는 과도의 단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규모가 대체로 같은 묘장중(墓葬中)에 부장품(副葬品)의 조합(組合)관계가 또한 믿을 만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우산하(禹山下) 41고분출토(古墳出土)의 유물은 또한 당시(當時) 그 일대(一帶)의 철기제조(鐵器製造), 금은세공(金銀細工), 방직기술(紡織技術), 유도공예(釉陶工藝) 등 방면(方面)의 정황(情況)을 이해시켜주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방면(社會生活方面)의 정황(情況)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요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더욱 이러한 유물의 출토(出土)된 환경이 비교적 정확하여 대체 연대(年代)의 순환을 이해하고, 고구려 유물에 대한 한단행(斷行)의 비교 연구(研究)도 가능하여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귀중한 표본(標本)이 되고 있다.

<註釋>

- ① 《吉林輯安麻□□一號壁畫墓》，《考古》1964年10期。長川二號墓，見吉林省博物館發掘資料。
- ② 鏡形的鍍金銅片在麻殘具一號壁畫墓中亦有出土，但因殘闕難辨在報，告中被稱為“□形器”
- ③ 麻殘溝一號墓中有同類器物出土，原報列為“Ⅰ式提手”。□巡次發現的數量和組合狀況來看，應是馬系上的裝飾。
- ④ 日人池內□等：《通溝》
- ⑤ 通溝十二號墓和麻殘溝一號墓，尙報分別刊于《考古》1964年2期和10期。按：小孔上的掛鉤可能是懸□□帳的。鄭文□《高句麗永樂太王碑文□考》中提到，當年曾有人見到高句麗壁畫墓中□有帳帳的情況（“碑估爲余言，墓墓如巨□流，齒石爲之，□火梁入，乃施□□…墓隨四壁皆畫象，□述精□”）号外，有□純以圖案裝飾四壁的高句麗壁畫墓，所繪圖案分明象織物的紋樣，應是模擬□帳的，亦可資參證。
- ⑥ 陳大爲：《桓仁縣考古調查發掘□報》，《考古》1960年1期：集安良民的材料，見吉林省博物館資料
- ⑦ 同④，上冊。
- ⑧ 同⑦。
- ⑨ 《三國志·□意·東夷傳》。
- ⑩ 《北史》九十四，列傳八十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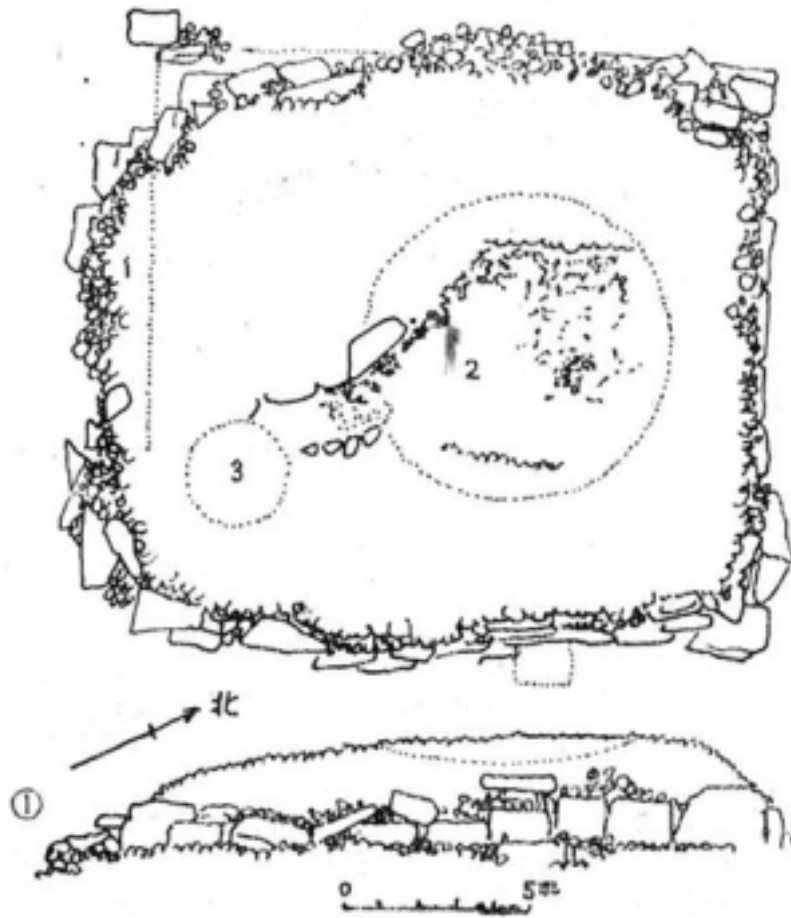


그림 1. 78호(號)고분평(古墳平), 입면도(立面圖) 1. 도괴부분. 무너진 2. 함몰된 갯(坑)의 범위 3. 금
동기출토위치(金銅器出土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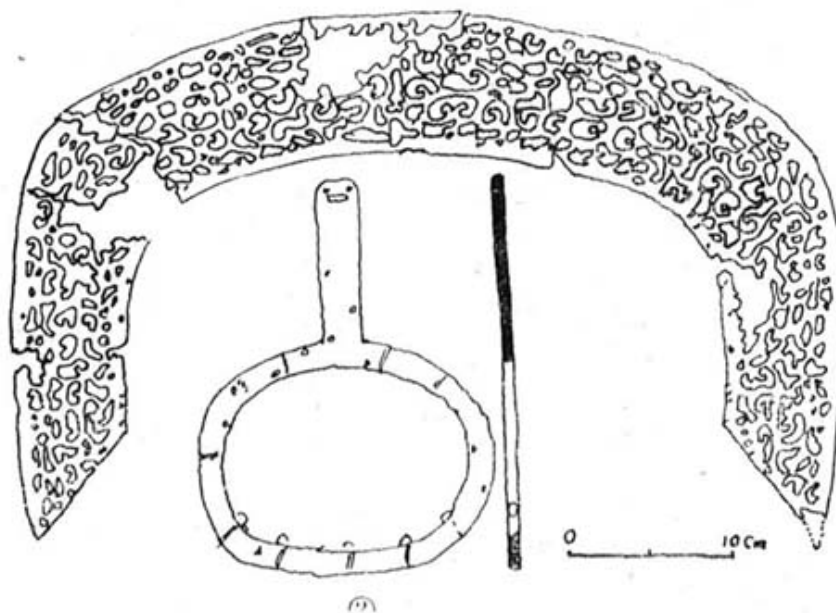


그림 2. 78호(號)고분금동기(古金銅器) 1. 마안(馬鞍) 2. 등(등)(內(내)에 목□(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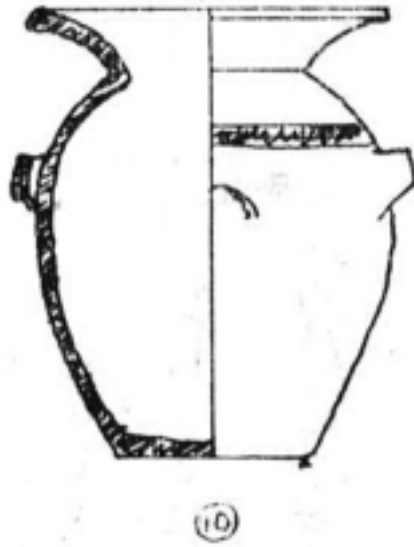


그림 3. 78호(號)고분출토금동기(古墳出土金銅器)

1-4, I-IV式 혁티자물쇠형고리(대□(帶□)) 5-7, I-III式 □관엽포식(□管葉泡飾) 8. 마□(馬□) 9, 10. 도형편(桃形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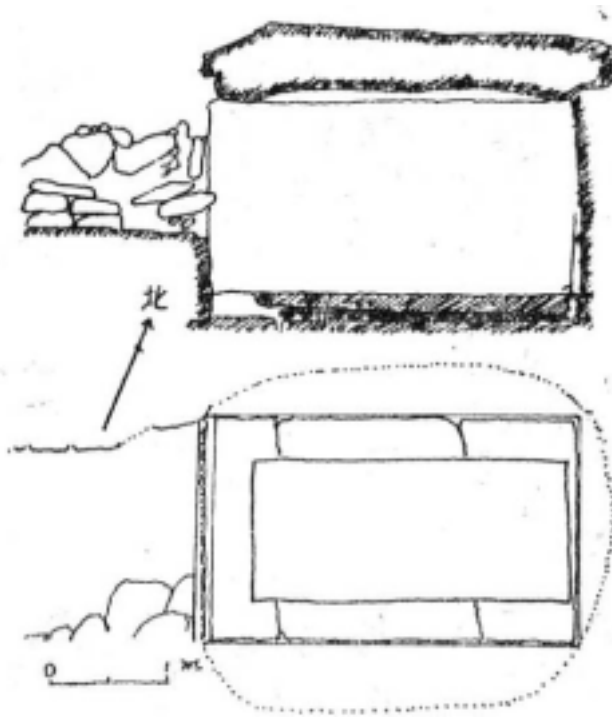


그림 4. 41호(號)고분평단면도(古墳平斷面圖). 그림 5. 41호(號)고분동벽(古墳東壁)벽화배치도(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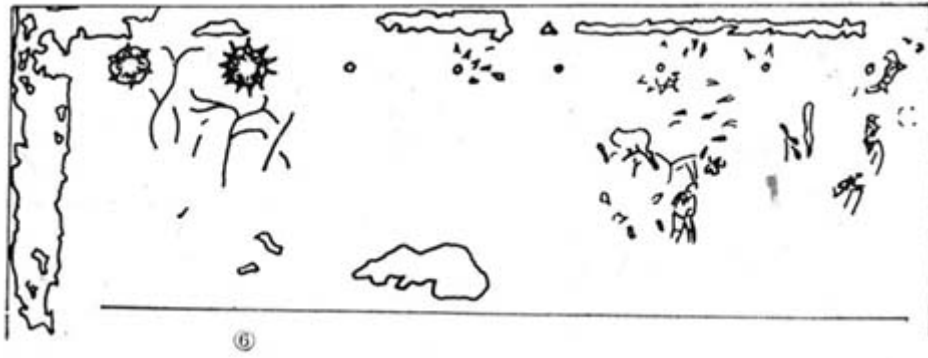


그림 6. 41호(號)고분(古墳) 북벽(北壁) 벽화배치도(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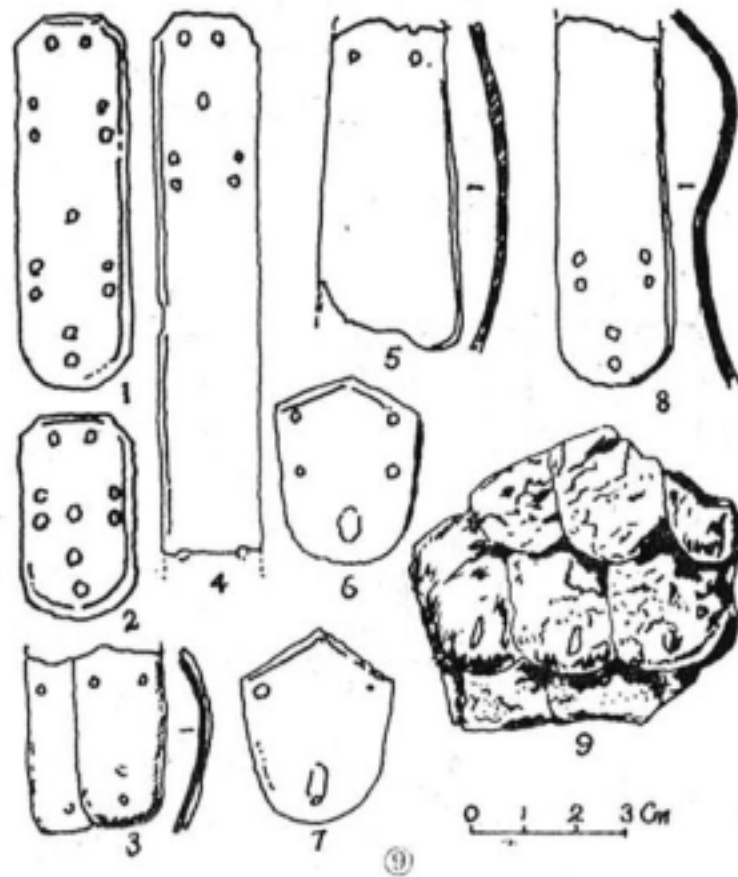


그림 7. 41고분출토철기(古墳出土鐵器)

1, 3. 국형반우(국形拌牛)(격쇠) 2. 고리((□□)(□□)) 4, 5. 원편당두(圓片當頭)(격쇠) 6. 마안판식(馬鞍板飾) 7. 모(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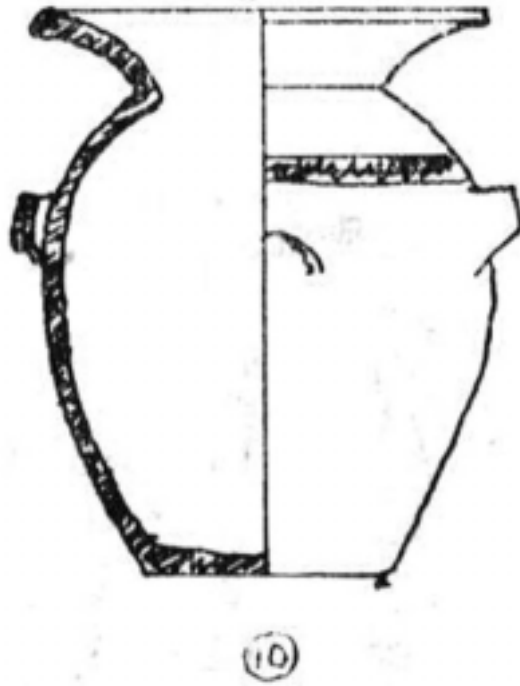


그림 8. 41호(號)고분출토(古墳出土)유물 1-3. 철(鐵)혁티고리편 4. 은제(銀製)못머리못 5. 금동반
원형장식(金銅半圓形裝飾)

6 은단식(銀端飾) 7. 철족(鐵 鏃) 8. 금동원포십자형대구(金銅圓泡十字形帶具) 9. 금동□관엽(金
銅□管葉)의 화식(花飾)

10. 금동능형식편(金銅菱形飾片) 11. 쇠추(철추(鐵墜)) 12, 14. 금동원모정(金銅圓帽釘) 13. 철
후모방정(鐵厚帽方釘)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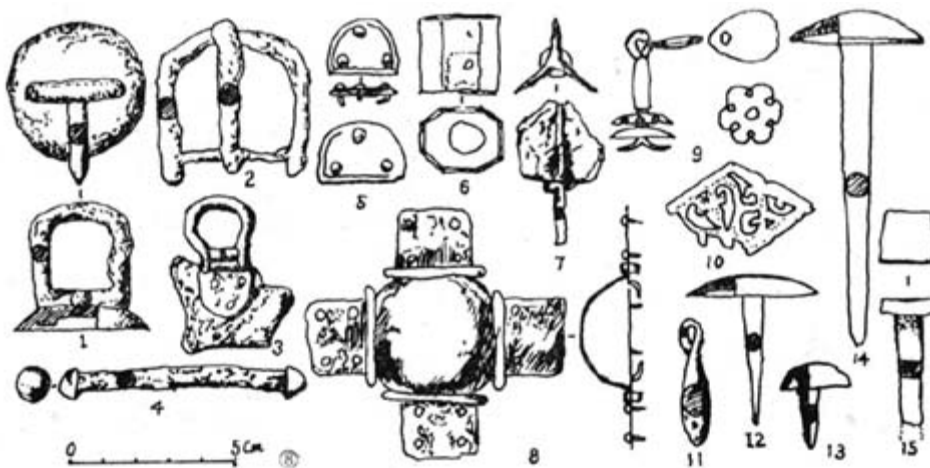


그림 9. 41호(號)묘출토갑편(墓出土甲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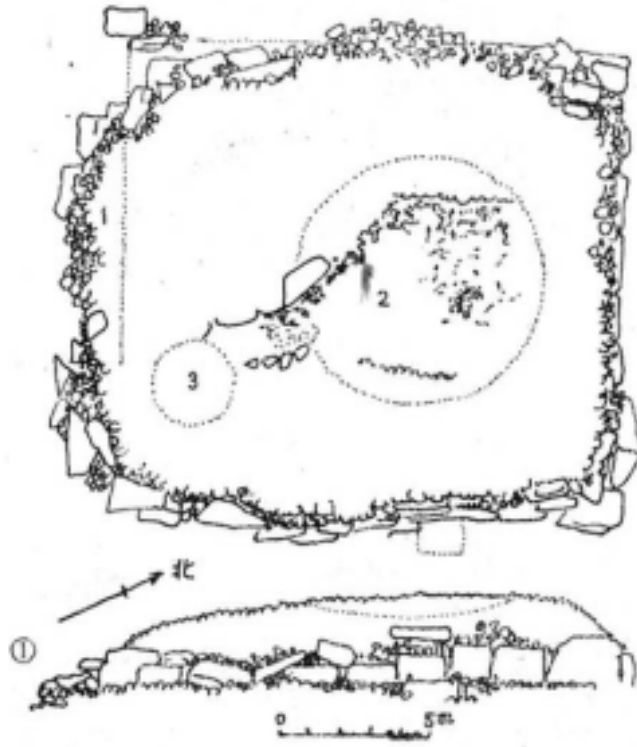


그림 10. 41호(號)고분출토황유토호(古墳出土黃釉土壺)(1/12)